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평양노회 복시찰회가 3일(화) 오전 11시에 사랑방교회에서 있습니다.
- 목사안수 청원 및 부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제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 세례문답과 입교 준비를 위한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제직연수회가 22일(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 어린이학교 9월 학년별 여행이 3일(화)부터 5일(목)까지 각 지역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학교 학부모 교육이 다음 주일(8일)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생일 감사)

강단을 꽂으로 : 서금선 권사 가정 (박희만 집사 기일)

세움공동체 창립 19주년 (감사)

손정미 집사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방교회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원로목사/ 정태일 담임목사/ 최성필

부 목 사/ 이원영 권혁신 이동기 협동목사/ 박광희

장 로/ 흥삼성 김영식 홍정길 안상호 은회장로/ 이용신

전 도 사/ 해 은 권재만 정재훈 장영미 정다운 최기찬 이어진

선 교 사/ 조남희 김하진 노효종 김희정 윤연섭 이양숙 최장수 허윤정 임채정 손희정

제 36 - 35호
2019년 9월 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저는 성서일기진도표에 따라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개역개정판)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던 은혜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름방학마다 중국 멋쟁이들은 1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대략 3주 정도 함께 여행을 하면서 동행합니다. 말로는 여행이지만 사실은 여행보다는 이동 수업 혹은 이동교육이라고 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뜻을 모으고 역할을 나누며 같이 동행합니다. 여행의 목적과 일정, 예산, 관광지를 선택, 맛집의 결정 다양한 내용을 끊임없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합니다. 심지어 여행의 약속까지 합의를 하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개인의 성향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때 교사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함께 행복하게 여행을 원하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동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선택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학생은 자기의 고집을 내리놓고 여행의 목적과 뜻을 향하여 함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아름다운 동행과 여행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많은 사람이 뜻이 같고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멋쟁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3박4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했습니다. 노고단, 토끼봉, 천왕봉, 이런 고유명사를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무거운 가방, 비가 오는 날씨, 며칠 동안 씻지 못하고 지독한 내색, 아픈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고학년 선배들 선교와 섬김

은 저학년 후배들을 배려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줍니다. 자기도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는데... 하루 중일 비가 오니까 정말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주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종주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과 뜻을 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는 동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험을 해보면 외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적인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은 마음과 뜻을 품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싶어서 수 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내세워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을 당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자기의 뜻이나 생각보다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 높은 차원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자연을 아름답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해온(海恩) 전도사

고마운 또또

지난 5월 갑작스레 형부가 돌아가셨다.

가족들 모두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속으로 삭이며 조용히 보냈다. 언니의 일과는 전화 통화를 통해 훤히 알고 있었지만 조카들과의 대화는 침으로 어려웠다. 한때 엄마 없는 아이보다 이모 없는 아이가 더 불쌍하다고 지인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조카바보였던 나는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둔 조카(근모)와 대학진학을 앞둔 조카(명지)앞에서 예전의 이모는 아니었다. 하하 호호하던 예전과는 달리 대화 내용은 무거웠다.

우리 집에는 4년째 같이 살던 강아지 또또가 있었다. 몸집이 작고, 겁이 많고, 동그란 눈은 새까매서 예쁘고,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순한 말티즈였다.

강아지는 산책이 제일 중요한데 가게 일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산책도 자주 못시키고, 집을 비울 때도 있어 늘 미안하고 걱정이었다. 궁여지책으로 가게로 같이 출퇴근도 해보았지만 나름 밥값을 한다며 가게를 너무 열심히 지켜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셨다. 한 달 전 또또 문제로 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언니가 또또를 키워보겠다고 했다. 옆에 있던 명지도 신이 나서 언제 오냐고 호들갑이고 언니도 우울하던 조카가 최근 생기있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자꾸 데리고 오라고 재촉을 했다. 막상 보내려니 또또에게 못 해준 것이 천지라 미안한데 명지는 용돈으로 또또 침대도 사놓았다고 재촉했다. 혹여 형부의 빈자리 만큼은 아니겠지만 또또가 언니집에서 기쁨이 되어주면 좋겠고 워낙 동물을 잘 키우는 언니라 또또에게도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소윤이를 설득해 대구 언니집으로 갔다. 걱정하며 또또를 두고 오는 길에 언니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걱정과 달리 완전 신나 있었다. 즉석에서 회원 6명의 또사모 카톡방이 결성되었다. 카톡방은 개^^판이다. 또또 산책하는 동영상, 조카랑 장난치는 사진과 영상, 얼마 전 명품짝퉁 강아지옷을 보냈더니 소윤이도 조카도 또또가 부럽다고 난리다. 명지는 엄마에게 또또 서열 1위를 했겼다고 불평하면 나는 전화를 걸어 또또 꼬시는 법을 전수한다. 하지만 아직도 명지는 서열 3순위이다. 근모는 노력 없이 서열 2위가 되어 또또의 애교와 장난을 원 없이 누리고 있다. 또또는 언니 집에서 매일 산책하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개 팔자 상팔자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 언니는 또또가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전화를 주었다. 눈물이 날 뻔했다.

이제 언니 집은 또또로 인해 하하 호호한다. 또또야 미안하고 고마워.

한주간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 시편 1편 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유다서 1:1-25

제목 : 바른 교훈, 바른 신앙

인도 : 최성필 목사

기도 : 석용범 집사

찬송 : 370 369 490 491 357

1. 내용관찰(What)

1-2(서론, 인사말)

3-23(본론)

3-4(유다서의 기록목적)

5-16(이단자들의 속성)

17-23(성도들을 향한 권면)

24-25(결론, 축복과 송영)

2. 내용의 의미(Why)

전체메시지) 주님은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신다.

- 잘못된 교훈을 유포하는 이단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하신다<3>.

3. 의미의 적용(How)

전체 적용)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믿음을 지키자<3>.

1)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자<17>.

- 잘못된 이단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2) 성령으로 기도하자<20>.

3)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을 동정하자<22-23>.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이어랑 이윤순 / 봉헌위원 : 구경본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인도자 : 이원영 목사
 설교자 : 최성필 목사

신명기 28 : 1-2
 19

영광 영광

이사야서 57 : 15

391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시편 1 : 1-6

449

설교자
한마음사랑방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 최성필 목사

200

은혜로다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공동기도문

온혜가 풍성하신 주님,
 좋은 계절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

본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본문은 열매를 맺는 신앙의 원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이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3>.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인의 삶을 ‘바람에 흘날리는 쪽정이’에 비유합니다<4>.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마7:15-20, 갈5:22-23>,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신앙인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는 비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2>. 우리 신앙인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세상에는 말씀의 열매를 맺은 사람, 즉 의인과 반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즉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최성필 목사 / 기도: 정혜정 친사

꾸러기학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길고 긴 여름 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개학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꾸러기들은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으며 두 팔 벌려 선생님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높고 푸른 하늘을 지붕 삼아 바깥에서 실컷 놀았습니다. 모래사장에선 각종 둘풀을 썩어 정원을 만들고, 트램펄린에선 제법 유연해진 동작으로 뛰어놀고, 어려운 사방치기도 실컷 즐기면서 놀았습니다.

꾸러기 밭에서 수확한 찰옥수수는 까마귀가 물고 갔는지 양이 얼마 안 돼서 함께 써서 먹고, 가지와 고추는 나누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2학기 때에는 배추를 심으려고 옥수수 대를 다 뽑아내고 새롭게 밭도 갈아 놨습니다.

방학 동안 멀리는 미국에서, 가깝게는 친구 집에서 지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진과 함께 나누는 꾸러기들의 얼굴에는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금요일에는 귀여운 하민이의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마음과 몸으로 주는 선물을 듬뿍 받은 하민이는 기뻐서 입이 학지박만큼 벌어진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키와 몸과 지혜가 자라는 하민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교사 : 정낙귀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개학 후 첫 정상수업을 했습니다. 개학직후라 피곤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준비물을 놓고 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뛰어놀길 좋아하고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더라도 잘 화해하는 활기찬 어린이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동그라미와 네모 하나 두울 장판공사가 되어서 너무 좋아하고,

배움과 가르침

먼저 모래들이 많이 없어져서 많이 퐐었습니다. 장판공사에 손길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네모 두울 청소를 하다가 인영이가 문에 발을 찧어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잘 걸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이 놀랐을 것이고, 누가 봐도 많이 걱정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어린이학교 아이들이 샌들을 신더라도 꼭꼭 양말을 신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조심해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편입생 3학년 친구 김예나 어린이와 4학년 친구 이수환 어린이가 다행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학교에서 편입생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기를 부탁드려요.

< 교사 : 김선휘 >

멋쟁이학교

지난 주간에 멋쟁이학교에서는 2학기 개강을 하면서 지리산 종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성삼재부터 중산리까지 이어지는 긴 산행을 모두가 함께 이겨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오를 때에도, 모둠별로 나아갈 때에도 나타났던 - 서로가 힘을 내어 역할을 다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씨가 지리산의 경치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도중에 비가 내려서 모자부터 신발까지 썩 젖어버리고, 길이 미끄럼턴 불편함을 한껏 겪었음에도 불평없이 서로를 격려했던 멋쟁이들은 정말로 멋쟁이었습니다. 천왕봉의 일출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못지 않은 장터목 대피소에서의 일몰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안전하게 하산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간부터 멋쟁이학교는 학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학기중에 잘 간직하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부터 함께 지내게 된 1학년 김지우 멋쟁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중에 만나시면 반갑게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내 영혼이 은총입어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우리 5섯 식구를 노란색머리에 파란색 눈을 가진 외국인 할머니께서 인사해 주십니다. 아이들 눈에는 ‘어? 장권사님이 아니네’라는 눈빛으로 의아해 하면서도 또 금방 그 친절함에 화답을 합니다. 이번 방학에 플래트클로브 브루더호프 공동체에서 만났던 외국인 할머니입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살면서 알게 되고, 또 책으로 많이 만난 브루더호프 공동체에 2박3일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묵직한 짐 3명과 함께 말이죠~ 아이들과 함께한 미국행 13시간의 비행은 고전13장 사랑장의 인내를 몸소 실천할 수 있었던 삶의 현장 이였습니다.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보낸 뒤 만난 그곳은 제가 17년 1월 사랑방공동체에서 처음으로 공동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불렀던 ‘사랑의 나눔’이 생각나는 곳 이었습니다. 처음이었던 저에게 잔잔한 감동이 많이 되었기 때문인데 식사 전 부른 찬양은 그 공동체의 영성을 나타낸다고 말씀해 주셨던 정태일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구름과 맞닿은 것처럼 높은 곳에 있었던 그곳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 어른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맨발로 다니며, 공동체를 둘러보고 있는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을 보며 어린이학교 아이들이 생각나고, 모래놀이터,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 사랑방의 흔적이었던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5시30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곳에서 적잖은 몸의 피곤함이 밀려오긴 했지만 ‘이땅의 하늘나라’를 꿈꾸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힘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기꺼이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한국에서 브루더호프공동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미국방문자들 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쯤 한국에서는 사랑방에서 한공협한마당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감사한 현장을 보며 글로벌한 사랑방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사랑방에 와서 많은 감화를 받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보며,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함께 살아 갈수 있다는 이 삶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여정이 끝난 후 새벽형으로 바뀐 아이들 덕에 아침기도회에서 불렀던 ‘내영혼이 은총입어’ 찬송가가 브루더호프 공동체방문의 마침표가 된듯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디아코니아 차태옥 사모

함께사는 이야기

〈주요 정오기도회〉

말 쓰 : 요한복음 17장

인 도 : 정재훈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일본을 위한 기도>

일본 안의 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커지도록

방사능으로 전 일본이 힘든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호하사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생명을 다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들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금 일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동광원을 위한 기도>

1. 동광원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신앙의 기쁨과 공동체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2. 연로하신 동광원 언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더욱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3. 수시로 열리는 동광원 여러 행사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사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 <학교와 교회를 위한 기도>

멋쟁이 지리산 종주, 멋쟁이 4학년 중국 적응을 위해 개학 첫주 어린이와 꾸려기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세례, 입교 대상자들 교육기간동안 은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질 시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가을을 맞아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지나 훌쩍 커버린 학생들의 반가운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멋쟁이 학생들은 지리산으로 개강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더욱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들입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아브라함 장막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바닥에 장판을 깔고 이중 현관을 설치하여 새로운 느낌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에는 신발장과 나무 빌받이가 놓여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밭 주변도 정리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걷어낸 닭장자리는 새로운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창 자라난 작물들과 새로 심기운 작물들이 이곳 저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재훈 전도사>